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3월호
2011

새로 장만한 복사기

“미놀타 코니카” 거의 2년 동안 충성스럽게 광야의 소리를 찍어내던 복사기 이름이다. 본디 중고를 구입해서 그런지 아니면 오래 되서 그런지 작년 말에 갑자기 칼라 프린팅에 문제가 생겼다. 몇 번 시도해보다가 결국 포기하고 흑백으로 찍어냈다. 본래 칼라에 중독되서 그런지 흑백으로 나온 광야의 소리를 볼 때마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렇다고 레터사이즈 한 페이지에 56센트씩 주고 복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하려면 20페이지짜리 광야의 소리 한부에 11불 20씩 지불해야 한다. 한 달에 총 400부를 찍는다면 매달 4480불을 경제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엄두가 안 나는 비용이다.

그러다가 올 초 정확하게 말하면 2011년 1월 1일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터져서 교회 안에 물난리가 났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견디지 못해서 고장이 난 것이었다. 한겨울에 물에 젖은 교회당 말려내라, 뜯겨나간 벽 고치라 교회 안이 어수선한 즈음에 교회 재정을 투자하여 아래와 같은 미놀타 코니카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시장 조사하던 중에 “리코 아피치오”가 물망에 올랐고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서 구입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한 것은 “미놀타 코니카”를 그나마 400불에 가져간다는 것이었다. 조금이나마 “리코 아피치오”를 구입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번에 칼라 복사기를 판 회사에서 계속 복사기 관리에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뉴멕시코 한인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광야의 소리가 새로 구입한 칼라 복사기를 통해서 즐기치게 발간되기를 기대해본다.

김두남 회장 14대 한인회장으로 연임

지난 2월 20일 정기총회에서 지난 2년 동안의 사업보고와 회계 결산보고를 마쳤으며 김두남 회장이 제 14대 한인회장으로 연임되었습니다.



South African-Nkazi Sinandile 와 함께



2월 17일 대보름 잔치

한인회 구정 잔치

지난 2월3일 구정을 맞이하여 어버이회 모임에서 떡만두국을 나누면서 한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 10~11일 이틀동안 가진 만두바자회에 많은 분들이 봉사해 주시고 구매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날 만든 만두로 대보름 행사 손님들을 접대하였습니다.

한인회 대보름 잔치

2월 17일 대보름 잔치를 어버이회 모임 주관으로 6.25참전 용사 25여분과 귀빈등 50여분을 모시고 최귀분, 엄선미, 마리아, 이명자, 이명희, 정찬식, 정풍자님, A1과 아리랑의 후원으로 꾸민 선물과 음식으로 대접하였습니다.



김두남 회장 동정



2월23일 Asian-American Day

2월23일은 매2년마다 켈러 상원의원이 개최하는 International day로 산타페의 State legislature (입법부) 행사에 김두남 회장이 다녀왔습니다.

뉴멕시코주 순회 영사 업무

일시: 2011년 4월 4일 월요일 9am-2pm
장소: 한인회관 9607 Menaul blvd. NE Abq, NM 87112 전화: 505-271-1777

영사관의 스케줄로 부득이 월요일에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리 스케줄 잘 조정하시고 주위의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서 편리하게 영사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알버커키 감리교회 부흥회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서 봄철을 맞이하여 조영진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오시는 조목사님은 버지니아 알링턴 지방에 속한 미국 감리교회들을 관리하시는 감리사님으로 김기천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한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1 부흥회

2011.3.18(금)~20(일)

시간: 7:30PM(금), 6:00AM, 7:30PM(토)
11:00AM(주일)

초청강사
주제 깊은곳으로 가십시오
1. 믿음 2. 소망
3. 사랑 4. 사명

조영진 목사
북버지니아 알링턴지방 감리사
위싱턴 연합감리교회 (22년간)
웨슬리 신학대, 한국감신 졸업

장소: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87113

당임목사
김기천

Ph. (505)341-0205 www.kumcabq.com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샌디아 연구소

지난 2월 14일자 알버커키신문 부록으로 나오는 "OUTLOOK"지에 샌디아 연구소가 뉴멕시코주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에 관한 글이 톱기사로 실렸다. 이 기사를 요약해서 정리해 보려고 한다.

알버커키에 있는 샌디아 국립연구소(Sandia National Laboratory)는 연간 2십억불의 자금과 1만명의 취업을 뉴멕시코에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10년 연구소가 뉴멕시코 주에서 구입한 물품과 서비스에 소비한 예산이 5억불이 넘었다. 이 액수는 전년에 비하여 40% 증가한 액수이다. 뉴멕시코주에 내고 있는 법인세(Corporate Tax) 만 해도 \$6백만불이 넘는다.

연구소장 폴 홈머트(Paul Hommert)씨는 최근에 있었던 경제관련 회의에서 연구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설을 한 바가 있다. 그의 연설에서 밝힌 내용을 빌리면 지난 2010년 샌디아 연구소의 총 직원 수는 9,298명이며 그 중 8,226명이 알버커키 연

구소에서 근무하는 숫자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계약회사를 통해서 일하는 직원이 1,335명이 더 있다고 한다. 지난 일 년 동안 새로 채용한 직원 수는 700여명이었고 상당부분의 인력을 이 지역 사람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특기할 것은 작년에 채용된 신입사원중 203명이 뉴멕시코대학(University of New Mexico) 졸업생이었다는 점이다.

연구소장 홈머트씨는 2011년 새해에 들어서서도 예년에 비등한 수준의 직원채용이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그 이유로는 작년에 있었던 260명의 퇴직자로 인한 공석과 금년에도 400명 정도 예상되는 퇴직자의 공석을 채워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와 연구소와의 관련 부분에도 언급했다. 뉴멕시코에 있는 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비즈니스에 지불된 자금은 5억불에 가까웠다. 그 중의 63%에 해당되는 3억불은 이 지역의 700개가 넘는 소기업체(Small Business)와 거래된 점을 강조했다.

이 기사는 중소기업체와의 좋은 협력관계로 말미암아 아프카니스탄 파병군인을 도운 사례를 소개하고 알버커키시장 리차드 베리의 연구소에 관한 커멘트, 연구소는 금년에 62주년을 마지 한다는 내용, 연구소 직원들의 사회봉사 활동 등을 소개하면서 끝을 맺었다.

Reference: "Sandia Primes N.M.'s Economic Pump", Albuquerque Journal (Outlook), Mon., Feb. 14, 2011

(글: 이경화 장로)

**Break out of your shell...
EXERT CONFIDENCE!**



**Watch them transform
and become more:**

- Self-Confident
- Disciplined
- Flexible
- Coordinated

Give your kids the edge they
need to succeed while having
great fun.

Dynamic Taekwondo Center
5850 Eubank # B-35
(505) 271-2000
New master in town
Master Jaeshin CHO
CALL NOW !!!!
I'll honor all previous Y'kim's,
pride tkd students

**Special
Introductory class
\$29.95
FREE Uniform**

Expires on June 30 2010

광야의 소리는

매달 1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 권구자 505-553-1009, Kuchachoy@q.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ssay-

For your mental health

Chung Gil Lee, DVM, PhD

Professor Emeritu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There are, however, too many people who have never considered that giving thanks is good for mental health. Perhaps the best evidence of this is to look at people who are generally not appreciative for what they have or what they have accomplished. They may not have contracted an illness yet, but they are not very happy folks either. You cannot separate body and mind. People who are continually dissatisfied with life eventually become physically ill.

Your health is worth the effort it takes to develop a mind-set of thankfulness. I used to challenge my students to try to find things for which they are genuinely thankful. Perhaps things are not going so well for you right now, and you do not feel thankful about much of anything. Keep in mind that as you begin to focus on those things in life that you do appreciate, feelings of gratitude will follow. The critical issue is to focus on those things that are positive. This can be very challenging if your usual style is to focus most of your thoughts on the negatives in your life. Confucius taught us, saying "do not do unto others what you do not want others to do unto you." I do not like to challenge others to do anything I am unwilling to do, so I have

decided to mention a list of things for which I am thankful.

I am thankful for the rain. After all, without enough rain, we wouldn't be able to enjoy all the beautiful flowers so characteristic of the spring season in this part of the world. A sprinkling of rain in the springtime of my hometown Kwangju used to be very soothing. When I was a child, I used to get soaked walking aimlessly in the rain.

Actually, I am grateful to have been living in relatively safe communities. Crime is growing everywhere in the world and we certainly are not immune to it. But crime in both Kwangju and Albuquerque is minimal compared to that in big Korean and American cities.

I am thankful to live in a country where I have the freedom to practice a meaningful faith. It is incredible to me that, in some places of the world, it is illegal to practice certain belief systems. The greatest barrier here is nothing more than a personal discomfort of wondering 'what will other people say?'

I am genuinely grateful for my health. I do not have any grave physical health problem, although I am not as strong as some other people. I have learned that keeping a vegetable garden is worth a medicine cabinet full of pills. Physical fitness can increase mental and emotional health, giving you more energy and a clearer mind. I am now feeling as fit as a fiddle at the age of 70.

I am thankful that I had a job in a profession for which I was trained and in a location where I truly wanted to be. Graduated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1963, I worked there

until I got retired at 65. During the time I left the university only when I joined the army, and when I studied in Australia.

Where would any of us be without friends? I cannot say that I have many friends, but I am thankful for the friends who can look past the imperfections of my life and still love and accept me. At the end of every year, my friends in Korea, Australia, America and Japan are thought of warmly and wished a merry Christmas and a very happy New Year.

I am grateful to live in the Internet age. When I was a primary school student, I studied under a kerosene lamp. Now, with e-mail, I can catch what my friends in those countries are doing almost instantly.

It is fortunate for me to get retired to Albuquerque. The new place in which I settled has an altitude of 2,000 meters and is dry, with abundant sunlight most of the year. I love the fresh air coming down from the majestic Sandia Mountains when I walk on the city streets every day. The city has been well-known to have many sanatoriums because of its favorable environments for health. The time when I have hardly anything to do is the most precious gift for me. My job now is trying to age with dignity by learning more about gratefulness.

Do you get the idea? The point is not to deny that you have problems, but to put them into perspective by deciding –even if just for one day- to focus on something for which you are thankful. Good health is only a temporary thing.

뉴멕시코 성결교회

전종철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 시간: 5:30 am (매일)

§ 장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505) 238-3551

로스 알라모스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님

주일예배 1부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 시간: 2:00 pm

§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11:00 am

§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님

주일예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in English)

§ 10:00 am (Sunday)

수요일예배 (Wed. Night Worship)

§ 7:30 pm (Wednesday)

새벽기도회

§ 5:30 am (Mon-Fri)

§ 6:00 am (Sat.)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 연락처: 505-453-5461

김기천 목사가 출간한 책 서평

아래 글은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의 서평으로 한국에서 출간하는 신문인 <기독교 타임즈>에 게재된 글이다.

(출처: <http://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08>)



이번에 김기천 목사님이 출간한 「잃어버린 신화를 찾아서」는 한 마디로 놀라운 책이다. 서평을 위해 책을 손에 들었는데 읽기를 시작하니 책을 놓을 수가 없었다. 신화의 의미와 종교적 체험, 그리고 다양한 신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놀라운 책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책이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신학도의 경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학을 접하게 되지만 이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성서해석 방법론에 의해 자기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일이 다반사다. 과학이 전부이며 신앙을 미신의 다른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신앙생활이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정쩡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현장으로 나온 목회자들은 신앙과 신학 사이에서 여전히 갈팡질팡하게 된다. 시간마다 설교는 하지만 늘 마음의 한 구석에는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이 자리한다. 그러는 동안 사

람들은 교회를 하나 들썩 떠나기 시작한다. 뭔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펼쳐 놓으면서 동시에 저자 특유의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신앙을 잃어버린 신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신앙이니 종교니 하는 것들이 무시되고 있는 시대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왜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이 필요한 것인지를 자신의 종교적 체험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탁월한 저술이라 평하고 싶다.

전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 저자는 먼저 '신화'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책을 시작한다. 즉, 이 책에서 말하는 '신화'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전혀 사실 무근의 만들어진 이야기를 지칭하기보다 종교인에게 있어서 역사의 실체이며 삶의 기반이 되는 종교적 경험, 즉 예언, 기적, 계시, 섭리 등과 같이 과학적 이해를 초월한 초자연적 사건들을 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본다. 신화에 대한 이런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이 책을 이해하고 풀어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ALLSTAR REALTY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그리고 저자는 Q 문서를 접하게 된 동기에서부터 깊이 연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로써 Q 문서에 대한 저자의 주장이 단순히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사실 도마복음이나 Q 문서에 대한 논쟁

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울의 Q 문서와 도마복음에 대한 주장이 답변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간 기독교에서는 도울의 주장에 침묵했지만 이것이 기독교와 신학에 대해 이해가 없는 무신론자들에게는 기독교의 오류와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내는 글로 받아들여져 마치 '기독교는 거짓된 종교'라는 식으로 매도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르게 되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면서 이 문제는 그냥 덮어둘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기독교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저자는 도마복음과 Q 문서에 대한 입장을 종교적 체험, 즉 신화와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밝히려 하였다.

2장에서 저자는 세상에서 '신화'라고 불릴 수 있는 종교적 체험이 어떤 것인지 먼저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설명한다. 동시에 성서적 세계관에 기초한 저자의 종교적 확신이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철저히 파괴되고 부서졌는지도 말하면서 신화를 잃어버린 종교생활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웅색하고 비참한 방향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지를 소개한다.

3장과 4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 삶의 근간이 된 기독교가 종교개혁 이후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 접근을 통해 그 능력을 상실해 가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즉 중세까지는 기독교가 인간을 지배하던 시대였다면 현대는 과학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성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과학자의 말에 더욱 신빙성을 갖는 시대로 변했다. 과학이 기독교 경전인 성경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해체시키는 단계에까지 이르르게 되었고, 그 결과 현대인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등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부인되고 하나님의 창조는 진화론의 칼날 앞에 산산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기독교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이 아닐 수 없다.

저자는 이 문제를 5장에서도 계속 이어가는데, 포이에르 바하와 칼 마르크스, 그리고 니체 등을 소개하면서 신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한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신화'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6장에서는 역사적인 성서해석 방법론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성서해석이 다 옳은 것은 아니며 이런 방법들 역시 많은 오류가 있고 논리의 비약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 성서신학을 포함한 현대 신학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기독교를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지 기독교의 중심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7장에서는 불투만의 비신화화와 야스퍼스의 신화적 세계관을 비교하면서 설명한다. 야스퍼스에 의하면 불투만의 비신화화는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야스퍼스는 "우리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일출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해가 떠오르면서 펼쳐지는 태양빛의 광채가 하나의 신비이며 영감을 불어 넣어주는 실체라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라고 묻는다. 그런 점에서 불투만 식으로 신화를 경시하는 것은 계몽이 아니라 가짜 계몽이라 말한다. 이런 점에 근거해서 기독교는 이제 '신화' 즉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저자는 결론을 맺는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부록에서 도마복음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일견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구성은 오히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신앙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석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저자는 이런 구성을

통해 수많은 성서의 단편적 자료들 중 하나로 소개된 도마복음으로 기독교를 폄하하려는 시도에 대해 무게 있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더 나아가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마복음의 오류와 실체를 밝히고 있다. 즉 저자는 도마복음을 포함하고 있는 낙하마디 문서의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그것이 기독교 이단사상이었던 영지주의와 인도 교주의 힌두교의 영향 속에 만들어진 글임을 설득력 있게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내내 행복했다. 솔직하면서도 막힘이 없는 저자의 논리는 흥미진진하게 우리를 신학의 세계로 인도한다. 그리고 신학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철학적으로 풀기 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종교적 체험과 연관해서 풀어간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이 담고 있는 방대한 양의 지식정보는 한 번 읽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오래전부터 알아 왔던 저자는 그간 끊임없이 학문 연구에 매진해왔다. 이 책이 그 증거다. 이 책 속에는 저자의 해박한 지식과 역사를 꿰뚫는 깊은 신학적 통찰력이 담겨 있으며, 신학과 신앙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민해온 흔적과 결과가 담겨 있다. 신학생들과 목회자는 물론 신학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 여겨져 일독을 권하고 싶다.

CST#2126850

NEW KOREA TRAVEL SERVICES



새한여행사



"
당신의 출발을
가볍게 해드립니다.
여행은 새한여행사의
미소로 시작됩니다.
"

대표 전화 (213)383-4988

가장 싼 비행기! 신속한 서비스!

항 공 권	호 텔	관 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항공권 도매가격 • 한국행 가장 현요금 서울출발(방문-이민) • 동경, 홍콩, 대만, 마닐라, 동남아 가장 현요금 • 전유일 가장 싼 요금 항상 보유 • 전유일 기차표 • 미국내선 가장 현요금 항상가능 • 중남미표 아주 현 요금 • 단체 특별할인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상 필요한 시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라, 롯데, 위키힐, 라미다 프네상스 호텔대리점 및 전세계 호텔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람관광 • 하와이관광 • 성지순례 • 신혼여행 • 크루즈 관광 • 미국내 동 • 중 • 서부 정기관광 • 남미관광 • 대양Tour Packages • 중국 • 베트남 • 소련 비지대행

새한여행사는 전세계 모든 항공사의 공인 대리점입니다










타주무료전화 1-(800)421-5489 FAX(213)383-6752

2717 W. OLYMPIC BLVD., #203, L.A., CA 90006 (올림픽·뉴앨프스, 나야은행 건물 옆)

Website: www.newkoreatravel.com E-mail: newkoreatravel@yahoo.com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Closed on Sundays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뉴멕시코주 관광안내

차코문화 국립역사 공원(Chaco Culture National Historical Park)

글과 사진 : 이경화

(지난 11월호에 흑백 인쇄된 것을 다시 칼라로 인쇄했다)

국립공원중에서 아주 특이한 곳이다. 이 공원은 역사 공원이라고 부르는 만큼 시간의 공간을 넘어야하는 공원이다. 약 천년전의 역사속으로 들어가서 유적을 보며 옛날의 문화를 생각하게 하는 공원이다. 또한 이 공원은 지역적으로도 외지고 먼곳에 있다. 공원으로 들어가는 16마일의 도로는 포장도 안되어 있어 교통이 불편한것까지 겹치니 더 먼곳같이 느껴진다. 시간과 공간 두가지 모두가 멀게 느껴지는 이곳을 관광지로



소개하는 까닭은 이곳에는 너무나 많은 신비스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까닭이다.

사진 1. 차코문화국립역사공원 입구의 Sign

뉴멕시코의 서북부의 고원지대인 산환분지 (San Juan Basin)에 있는 차코 케년(Chaco Canyon)에 900년부터 1150년까지 아나사지 인디언이 찬란한 문화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한 건물에 수백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같은 대형 건물을 다층구조로 여러채를 지었다. 벽을 쌓는것은 현지에서 나오는사암돌을 벽돌같이 잘라서 층층이 쌓아서 대형건물을 지었는데 4-5층 구조로 짓기위해 많은 석가래용 통나무가 필요했다. 그들이 사용한 통나무 수는 약 20만개였을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부근은 비가 오지 않는 황야여서 큰 나무가 자라지를 않는 곳이다. 그들은 50마일이 되는 먼 거리에 있는 산에서 벌목을 해서 운반해 가져왔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마차라는데 없었고 바퀴자체가 발명되지 않았으니 인적 노동력에 의존했을텐데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했는지 알수가 없다. 애초에 집단 거주 지역을 왜 산밑이나 강가 같은 입지조건이 좋은곳을 택하지않고 이와 같은 사막같은 황야의 고원지대에 정했는지도 알수가 없다. 이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직선도로를

여러개 만들어 주변의 다른 마을과 연결되게 해놓았는데 도로의 폭이 30ft나 되게했다. 마차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넓은 도로를 만들었는지도 알수 없는 일이다. 달과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춘분과 추분의 날짜를 알았고 천문학적 지식을 건축공사와 농사짓는 일에 적용시켰다. 도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었고 그들의 터키석(Turquoise) 보석 공예품은 멀리 남쪽 멕시코의 정글과 태평양 연안에 까지 거래되었다.

그러나 1150년경 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말마암아 아나사지 인디언들은 살기가 어려워지자 이곳을 버리고 생활여건이 좋은곳으로 떠나기 시작했다. 현재의 나바호(Navajo), 주니(Zuni), 푸에블로(Pueblo) 인디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한것 같다고 한다. 그후 차코 케년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많은 대형 건물은 먼지를 뒤집어쓰고 흙더미로 덮힌채 600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1846년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896년 본격적인 고고학적 발굴작업이 시작되어 Pueblo Bonita의 한 건물에서는 5년간 발굴결과 60,000여점의 유물을 화물차에 실어 뉴욕 박물관으로 보냈었다. 1907년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National Monument로 지정되었고 1980년에는 국립역사 공원(National Historical Park)으로 지정되었다. 1987년 UNESCO에서 세계문화유산지역(World Heritage Site)으로 지정되었다. 이 공원내에는 약 2400개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은 유적지가 발견되었지만 발굴작업을 한 유적지는 소수에 불과하고 앞으로 발굴해야될 유적지는 많지만 되도록 발굴을 서두르지 않고 미루어 고고학적 과학기술이 더 발전될 후 세대에 가서 하도록 유적지 보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1. 공원내의 중요 유적지와 Trail

이곳으로 가는 길은 알버카키에서 I-25로 16마일 북쪽으로 가다가 Exit 242로 나와 US550 (NM44)번 도로로 서쪽을 향하여 70마일을 가면 Cuba를 지나며 48마일을 더가면 (마일 포스트로 112.5마일지점) 주유소가 있는 마을근처에서 County Road 7900을 만난다. 이곳은 Nageezi란 마을을 3

마일 앞에 둔 지점이다. CR7900으로 좌회전해서 포장된5마일을 가서는 우회전해서CR7950으로 바꾸어 공원Sign을 따라 16마일 비포장 도로를 달리면 공원 입구에 이르러 포장된 도로로 들어선다.

공원 남쪽에서 57번도로 (혹은14번) 들어가는 길도 지도에 표시되어 있으나 추천할수 없는 길이다. 도로 관리가 전혀 않된 길이여서 SUV차라고 할지라도 비가 온뒤에는 도저히 갈수 없을때가 있는 힘든 길이다.

공원에서 둘러 보아야 중요한곳을 몇곳 아래에 추천해본다.



사진 2. Visitor Center내의 전시물

1. Visitor Center

이곳은 당연히 들려야 할곳이다. 입장료를 지불해야 될뿐만 아니라 역사공원인 만큼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시간적 공간을 넘어서는게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였다. 차코문화에 관한 비디오키가 상영되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파악하게 하는 추천할만한 비디오프로그램이다. 전시장의 전시물로서 터키석을 이용한 공예품, 물 그릇을 위시하여 여러가지 도기들과 이를 장식한 무늬가 특이하다. 터키석으로 가공한 유품은 6만개 이상이 이 공원에서 발굴되었다고 한다.

최근에 와서 공중사진과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으로 옛날에 만든 도로의 흔적을 볼수 있다. 차코 케년을 중심으로 거미줄같이 사방으로 뻗어나간 직선도로가 모두 합치면 약 400마일이된다. 말이란 동물이 없었고 바퀴 달린 차가 발명되기 이전에 폭이 30ft(10m)아 되게 직선도로를 계획적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중 하나다. 도로를 만들때 산이나 언덕같은 장애물이 있을때 이를 피해 돌아가는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들이 만든 도로는 계단을 만들더라고 직선을 고집하며 굽힘이 없는 직선 도로를 만든 이유를 아직 알 길이 없다.

2. 파하다 뷰트

Visitor Center 남쪽을 보면 파하다 뷰트(Fajada Butte)라고 부르는 뾰족한 산 봉우리가 보인다. 이곳은 유적의 보존을 위해서 일반 여행객의 접근이 금지된 곳이다. 이곳은 당시의 천문관측의 유적이 있는곳이다. 해의 위치에 따른 돌판사이로 비치는 그림자의 이동을 관측하여 동지와 하지, 춘분 추분을 알아내는 나선형의Petroglyph가 있는데 이를 Sun Dagger라고 부른다. 현장에는 갈수가 없지만 Visitor Center에서 상세하게 설명된 자료를 볼수 있다.



사진 3. 태양관측에 쓰인 Sun Dagger가 있는 Fajada Butte.

3. 우나 비다(Una Vida)

Visitor Center앞 주차장에서 걸어갈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유적지로서 약 150개의 방과 다섯개의 Kiva를 가진 곳이다. 발굴을 하지 않은 상태의 유적지로 대표적인 모습을 여기서 볼수 있다.



사진 4. Pueblo Bonito의 전경.

4. 푸에블로 보니토(Pueblo Bonito)

이곳 공원에 있는 유적지 중에서 가장 크고 차코문명을 대표할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다. Pueblo Bonito의 뜻은 "아름다운 마을"이란 뜻이 된다. 4층 구조로 지은 대형 아파트 같은 건물로서 651개의 방과 40개의 Kiva를 가진 건물 유적지다. Park Ranger가 안내하는Guided Tour가 오전 10시와 오후

2에 있는데 이를 따라가면 푸에블로 보니토를 더욱 깊이 있게 관광을 할수 있다. 시간을 맞추기 어려우면 Self-Guided로 혼자 구경할수도 있다. 반달모양이라 할수도 있고 "D" 글짜 모양이라고도 할수 있는 설계로 지었다고 말할수 있다. 그림 2에는 1000년전 본래의 Pueblo Bonito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다. 건물의 배치가 남향이 되도록 지었는데 반원의 직경부분이되는 전면의 벽이 춘분과 추분때의 해뜨는 지점과 해지는 지점을 이은선에 일치하게 배치를 했다고 한다. 이 건물은 주택지로 쓰인것은 아니고 종교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쓰여진 건물로 추정한다고 한다.



사진5. Pueblo Bonito의 상상도.



사진 6. Pueblo Bonito의 Kiva에 관한 설명을 듣는 관광객.

5. Kin Kresto

"노란 집"이라는 뜻을 가진 Kin Kresto(킨 크레스토)는 사암 벽돌의 색깔이 특별히 노랑색이여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것 같다. 100여개의 방과 5개의 Kiva를 가진 건축물이다. Pueblo Bonito주차장에서 서쪽으로 가면 Loop의 One Way 길에서 벗어나는 길로 들어서서 Kin Kresto주차장에 이른다. 거기서 도보로 약 0.3마일 서쪽으로 걸어야 된다. Mesa위로 가는 Trail로 하이킹을 할려면 이 길을 택해야 된다.

6. 푸에블로 알토 (Pueblo Alto)

하이킹을 한다면 이곳을 가 보는것이 좋을 것이다. Pueblo Alto는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이란 이름의 뜻 그대로 이 지역의

제일 높은 곳에 있다. 이곳으로 가는Trail은 Kin Kresto의 뒤에서 시작해서 절벽 틈으로 올라가게 된다. 왕복 3마일이 되는데 도중에는 Pueblo Bonito를 내려다 볼수 있는 지점으로 가 볼수도 있다.

Pueblo Alto는 Mesa꼭대기에 있어서 북쪽으로 트인 광야를 내려 보게 된다. 천 년 전에 만든 직선도로는 이곳 푸에블로 알토로 모이게 된것을 보면 이 마을은 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한곳 같다.

끝으로 공원소개에 도움이되는 웹사이트를 아래에 몇개 적어둔다.

* 차코국립공원 홈페이지: www.nps.gov/chcu

* 태양관측(Sun Dagger Explorer): accad.osu.edu/~aprice/works/sundagger

* 위키페디아 백과 사전: en.wikipedia.org/wiki/Chaco_Culture_National_Historical_Park



사진 7. Pueblo Bonito의 유명한 방과 방사이를 잇는 연속된 문들.



THE INGLES
Company Realtors

최귀분

- Office: 505-828-1366
- Fax: 505-828-0773
- Cell: 505-249-8686
- E-mail: guiboon@msn.com



Forget Hell!

Newsletter for members and friends of
Albuquerque Chapter 1,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March 2011

Upcoming Meeting: Tuesday the 8th at the Veterans Affairs campus, Gibson and San Mateo. Customary gathering in the cafeteria during the noon hour for lunch, assembly in Building #4 for the meeting starting promptly at 1 p.m.

Guest speaker: Pat Gaston of the Women Veterans of New Mexico. She is the daughter of a Korean War veteran as well as having military service in Korea herself (1990).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Association of New Mexico once again demonstrated its cordial friendship with local Korean War veterans by inviting our members to its "Full Moon" luncheon last month. As before, the food was excellent, diverse and generous.

"Our war" continues as a war of words. And it's heating up. Late last month, North Korea accused South Korea and the U.S. of plotting to topple the North's communist government. It said if provoked, North Korea would start a "full-scale" war, take "merciless counteraction" and turn Seoul into a "sea of flames." It further threatened to "take our own missile striking action" against what it claimed as moves by the U.S. and South Korea to eliminate the North's missiles. The statement didn't elaborate. Earlier, the North's military warned that it would destroy South Korean border towns if Seoul continues to allow activists to launch propaganda leaflets toward the communist country. The North's war machine is now equipped with nuclear

capability. Left for us to wonder is whether it will resist the pervasive urge to use it.

Forget Hell! is published by Albuquerque Chapter One of the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President: Jerry R. Chapman, 1600 KnollCrest Ct., Los Lunas NM 87031. Vice President: Louis Fernandez, 1170 Crestview Dr., Los Lunas NM 87031. Secretary-Treasurer: Lawrence V. Fenimore, 3517 Camino de la Sierra Dr., Albuquerque NM 87111-5507. Assistant Secretary: Sarah Langley. Chaplain: Mike Lucero, phone 505-898-6748, Cell 401-9411. Illness or death of a member should be reported to Mike. Newsletter editor: Frank Praytor, fdpalaver@comcast.net

종교가 세상을 걱정하던 시절 이야기

2011.03.05 <조선일보>

한경직 목사·성철스님·김수환 추기경 따라가 보라 無欲·淸貧·솔선수범·관용의 정답이 거기 담겨 요즘 들어 세간 사람들 밥상머리에 종교 이야기가 올라오는 일이 잦아졌다. 여러 종교의 집안 사정이 걱정스럽다는 투의 이야기다. 그 가운데는 풍설(風說)에 억측(臆測)의 살을 붙인 것도 적지 않다. 이해타산이 얹히고설켜 세속사(世俗事)가 만만치 않은 거라면 그 세속의 질긴 인연을 땀겨 베 내던지고 돌아선 이들이 모인 성직(聖職) 세계는 더 녹록지 않은 법이다. 헛짚고 함부로 입방아를 찧을 일만도 아니다. 그래도 그렇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종교에 폐를 끼쳐왔는데 그게 언제였느냐는 듯 근년의 몇몇 사건을 들어 종교 흥을 보는 게 유행이 되다시피한 세태에 세상 참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한다.

우리 사회가 종교에 두통거리를 안겨주던 시절, 우리들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을 남긴 종교계의 큰 어른으로 한경직 목사(1902~2000) 성철 스님(1912~1993) 김수환 추기경(1922~2009) 세 분을 꼽는데 별 이견이 없을 듯하다. 세 분은 각기 다른 종교를 떠받치는 기둥이었는데도 그분들을 한데 묶는 공통 단어는 금방 떠오른다. 청빈(淸貧)이다. 한국 대형 교회의 원조인 영락교회를 일으킨 한 목사가 남긴 유품은 달랑 세 가지였다. 휠체어·지팡이·겨울 털모자다. 집도 통장도 남기지 않았다. 성철 스님은 기우고 기워 누더기가 된 두 벌 가사(袈裟)를 세상에 두고 떠났다. 김 추기경님이 지구를 다녀간 물질적 흔적은 신부복과 목주뿐이다. 얼마 전 추기경님의 또 다른 유품 뒷소식이 신문 모퉁이에 나왔다. 추기경님이 기증한 각막을 이식 받고 시력을 되찾은 어느 시골 양반이 용달차를 몰게 됐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세 분은 엄청난 재산가였다. 각각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주었다. 목사님이 작고한 이후 개신교는 또 한 차례의 중흥기(中興期)를 맞은 듯 신도 수가 크게 늘었다. 성철 스님 열반(涅槃) 뒤 스님의 삶이 알려지면서 불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길 자체가 달라졌다. 추기경님은 생전부터 재산을 물려주기 시작했다. 그가 천주교를 이끌던 시절 신도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세상을 떠난 다음 세 분의 향기는 신도의 울타리를 넘어 일반 국민들 사이로 깊고 멀리 번져갔다. '가난한 부자들'이었다. 세 분은 예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던 분에 그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부처님의 삶을 지금 여기서 그대로 살아보고자 했던 분이었다. 그걸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보여 주었다. 목사님은 설교 중에 몇 번이고 신도들을 울리고 웃기는 능변(能辯)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도 전설적인 목회자로 존경받았던 것은 그의 삶이 설교의 빈 구석을 채우고도 남았기 때문이다.

어느 겨울 한 신도가 목사님이 추운 기도실에서 기도하다. 감기에 걸릴 걸 염려해 오리털 잠바를 선물했다. 얼마 후 그 신도는 영락교회에서 백병원 쪽으로 굽어지는 길목에 바로 그 잠바를 입고 한 시각장애인이 구걸하는 모습을 만났다. 목사님 아들도 같이 목회자(牧會者)의 길을 걸었지만 후계자라는 단어조차 흘러나온 적이 없었다. 성철 스님은 늘 신도들의 시주(施主)를 받는 걸 화살을 맞는 것만큼 아프고 두렵게 여기라고 가르쳤다. 쌀 씻다 쌀이 한 톨이라도 수젓구멍으로 흘러간 흔적이 보이면 불호령을 내려 다시 주워 밥솥에 넣도록 했다. 불교계의 큰 어른인 종정(宗正)직을 오래 맡았지만 중 벼슬은 닭 벼슬만도 못하다며 항상 종정 자리를 벗어날 틈을 찾곤 했다.

면 희망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씀대로 추기경님은 명동의 노점상 앞에 가끔 걸음을 멈추고 목주를 샀다.

세 분은 평생 일편단심으로 자신이 믿는 종교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실천하면서도 다른 종교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한 적이 없다. 목사님은 교파의 경계를 넘어서는 교회 일치 운동에 열심히셨고 추기경님은 성철 스님의 부음을 접하고 누구보다 먼저 조전(弔電)을 보냈다. 성철 스님은 여러 종교의 경전에도 두루 관심을 보인 분이였다. 한국 종교계는 복(福)이 많다. 오늘의 문제를 풀기 위해 멀리 밖에 나가 배울 필요가 없다. 고개를 들면 스승의 얼굴이 보이고, 고개를 숙이면 그분들의 생애가 펼쳐져 있다. 생(生)의 심지가 닳고 나서 더 환하게 세상을 비추던 세 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해도 종교가 세상을 걱정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 (B. Lee께서 기사를 제공해주셨습니다.)

PARK Fine Art
The Galeria 20 First Plaza NW Suite 27
Albuquerque, NM 87102

문화센터 강의 안내

성인, 주부취미반 (유화-oil painting과 파스텔화)
임시반 (포트 폴리오준비반, 덧생반)

강사: 박영수
서양화가, 갤러리 Director,
UNM CE oil painting 강사

☐ 자세한 안내 문의 ☐
갤러리: (505)-764-1900 휴대폰: (505)-681-3859
www.parkfineart.com E-mail: contact@parkfineart.com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Albuquerque NM

Mon~Sat
10:00~6:00

Sunday
close

추기경님이 남긴 인생 덕목(德目)의 하나에 '노점상'이란 항목이 있다. '노점상에게 물건 살 때 값을 깎지 말라. 그냥 주면 게으름을 키우지만 부르는 값을 주

ICHIBAN
Japanese Restaurant

一番 Japanese Food & Korean Food

Phone (505)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 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BQ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Midori Susui 6205-B
Montgomery NE ABQ
(505-830-2507)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BQ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BQ (505-275- 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츄럴: 2302 Morris
NE, ABQ (505-453-5461)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505-999- 8222)

Stadium Liquor 1306
Brodway SE ABQ, NM
(505-242-8542)

모텔 Hotel/Motel

Ramada Inn: 2015 Menaul
Blvd NE, ABQ
(505-881-3210)

부동산 Realtors

그레이스킴 Grace Kim:
Kerzee Real Estate
(505-315-5123)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최귀분 Gui B. Bonaguidi:
Vaughan Company
(505-249-8686)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BQ
(505-883-9009)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Central Outlet: 4716 Central
Ave SE, ABQ (505-
255-4345)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Dynamic(Ashley):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샌디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BQ
(505-823-1678)

알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주택융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200 Lomas
Blvd. NW 11flow 87102
(Office 505-765-5098)
(cell 505-379-1089)

교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BQ
(505-271-2633)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Master Jaeshin
Cho(505) 296-0336

한의원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BQ
(505-710-7504)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 514-2900)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중재서비스

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crest
Dr. SE Suite #O Rio Rancho,
NM 87124

Osaka Restaurant: 1463 Rio
Rancho Blvd, Rio Rancho
(505-892-777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

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

겔럽 Gallup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5396)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Five Brother's Chinese:
1001 E. University Ave.,
C1, Las Cruces
(575-496-2445)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사고/팔고



알버커키 박영숙 화가(www.youngsookpark.com)와 김수영 화가(www.geocities.com/hongsooyoungstudio)의 작품들입니다.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www.kaanm.com

stamp here

61 cent 우표
붙인 후 반으로
접어서 발송

To: